

북한의 수의방역 현황*

조충희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 | jo526227@naver.com
박찬홍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 ksfcpark@naver.com

1. 머리말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축산부문에 증산을 우선과제로 하여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초식가축 사육 확대, 풀판 조성, 축산시설의 현대화 등 축산 인프라 개선과 생산 공정의 효율화, 품종개발 등 축산기술 분야에서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축산부문에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 셋째도 방역”을 언급했던 1954년 김일성의 연설¹⁾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 당국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수의방역부문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난에 따라 수의방역부문의 정체와 후퇴가 반복되고 있다. 사료부족에 따른 가축의 면역력 저하, 비위생적인 축사 관리에 따른 질병 감염 위험의 증가, 개인 농가에 의한 무질서한 가축사육의 확산, 재정부족에 따른 방역 기술의 담보, 수의약품의 부족 등은 기존 수의방역체제에 취약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북한지역의 수의방역 현실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측의 축산부문, 더 나아가 식량안보와 인수공통전염병 등 보건위생 차원에서도 중대한 위험요인이 된다. 하천과 지하수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인성 전염병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공기매개성 전염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일대의 야생동물, 모기 등의 매개성 전염병에도 취약하다. 수의방역체계의 심각한 공백을 보이고 있는 북한 당국이 북한 지역 내 수의방역에 실패할 경우 우리 측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 본 원고는 조충희, 「북한의 수의방역정책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을 발전시킨 내용이다.

1) 김일성, 「산간지대의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농업부문 지도 일군 및 축산기술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4. 6. 7)」, 『김일성 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461.

2010년과 2011년 구제역 대유행 등을 경험했던²⁾ 우리로서는 이 같은 위험요인을 배제하고, 남한 지역에 국한된 수의방역에만 치중할 수 없다. 한편, 같은 이유로 우리 측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북한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북한의 열악한 수의방역체계로는 축산부문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고, 식량난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축산업에 관한 일부 연구³⁾ 이외에 북한의 수의방역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 성환우 외(2007)는 북한의 최근 축산동향과 가축방역현황을 정리하였다. 다만, 북한의 수의방역체계와 수의방역 현실에 관한 세부 조사와 검토에 이르지 못한 결과, 북한의 수의방역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수의방역 현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 당국의 정책 지침이 되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집과 선집, 북한 당국의 공식기록인 『조선중앙연감』, 그리고 사전류, 잡지류, 신문 등 북한의 문헌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료들을 함께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북한의 수의방역체계의 변천을 역사적 관점에서 시기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한편, 현행 수의방역체계를 조사하였다. 제3장에서 북한의 수의방역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II. 북한의 수의방역체계 현황

1. 수의방역체계의 변천

북한의 수의방역 관리체계와 수의방역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살핀다. 이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세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해방 후부터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1959년까지를 수의방역체계의 형성기로, 둘째 경제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1960년 이후 1989년까지를 수의방역체계의 확립기로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그 기간 중 발생한 직접 피해액만도 3조 1,759억원(추정치)에 달하였으며, 매물 처분 후 침출수 문제, 고기값 급등 문제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실처분에 따른 농가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사회, 경제적 손실규모는 이를 훨씬 능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축산업 관련 연구로는 주로 북한의 축산업 현황을 다루거나, 축산부문의 남북협력이나 대북지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북한 축산행정, 생산 및 유통체계, 사육기술, 품종, 배합사료를 조사하거나(김석동[2011]), 북한의 가축사육 두수, 축산물 생산 및 소비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김윤근·신승렬[1997]), 또한 남북협력 방안과 관련한 연구로는 북한의 축산과 남북협력 방안(지인배[2004]), 북한의 축산현황과 남북한 축산 협력방안(김형화[2005]), 농업부문 대북지원 및 협력의 새로운 모델개발 연구(김윤근[2005])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북한 축산의 실태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북한 축산부문에 대한 지원 내지 협력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데 그치고 있다.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가중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수의방역체계의 형해화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⁴⁾

가. 해방 이후 1959년: 수의방역체계의 형성

해방 후 북한은 일제강점기에 수의분야 학자로 활동한 김종희⁵⁾를 중심으로 일본의 가축방역 방식과 기술, 구소련의 방역체계를 대부분 수용하였다.⁶⁾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행정 10국 가운데 농림국 아래에 축산부 위생과를 두었다. 1947년 2월 22일에 성립된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변경하면서 1947년 5월에는 농림성 산하에 수의방역소를 설치하였으며,⁷⁾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농림성을 '농업성'으로 개칭하였다. 한편, 농업성 아래에 축산국에 수의방역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도 및 군 인민위원회 수의방역 담당 조직 아래에 가축방역소, 가축병원을 설치하였다. 또한 1946년 약품생산과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가축위생연구소'를 조직하고, 1947년 4월 북한의 축산 등 부문별 농사시험장을 지도하는 '중앙농사시험장'을 설치하였다. 이에 기초해서 1948년 12월에는 '농림과학연구소'를 발족한 후 1952년 '농업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과학원 산하 '농산학연구소'에 '수의학연구소'를 두었다. 1958년에 수의학연구소를 '수의축산학연구소'로 승격시키면서 수의학연구소가 분리되었다. 연구소에는 전염병, 기생충 등 분야별 연구실과 종합실험실, 시험목장 등을 두고 있다.⁸⁾

해방 이후 수의방역을 담당하는 행정 및 연구조직의 설치, 수의사 양성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수의방역 현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었다. 1948년 이후 새로 조직된 국영목장들에서 발병한 일부 가축전염병으로 상당한 고충을 경험하였으며,⁹⁾ 전후 국영목장이 증가하면서 관리부실에 따른 가축폐사 등의 문제가 증가하였다. 1958년 이후 '사회주의 개조'의 일환으로 농업의 협동화가 상당히 진척된데 따른 것이다. 즉, 기존의 개인사육 방식이 국영목장에 의한 집단사육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수의방역정책에도 변화가 수반되었다. 1953년 8월 17일에 채택된 「국가 농업 및 목축업 강화발전 대책에

4) 북한 지역에서 1960년대 이전과 1990년대 이후시기에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가축전염병의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시기구분은 적정성을 갖는다.

5) 북한 당국은 1946년 월북 과학자로서 북한 축산학계의 시초를 열어 놓은 원로학자로 평가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광명대백과사전 18』,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p.428; 김근배, 『월북과학기술자 홍남공업대학의 설립』, 『아시아 연구』, 1997, pp.95-130).

6) 소련의 가축방역시스템 도입은 북한의 1차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자료집 30』, 국사편찬위원회, 1998, pp. 550-552).

7) 『로동신문』, 「수의방역소창립 50돐 기념보고대회 19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 1997. 11. 22를 참조하라.

8) 평화문제연구소·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 평화문제연구소, 2003, p.172.

9) 김일성, 「국영농목장사업을 개선하며 국영경리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농림성및국영농목장일군회의에서 한 결론 1949년 7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pp.194-197 참조.

관한 내각결정 집행정형에 대하여(내각결정 제103호)」¹⁰⁾와 1954년 6월에 축산기술자 협의회에서 김일성의 교시¹¹⁾는 당시 수의방역정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후 북한 당국은 1959년 당중앙위원회 6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과업’을 통하여 집단사육 방식의 축산업에서 가축방역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수의사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은 1947년 2월 20일 「북조선 수의사규정(농림국 포고 제17호)」과 1947년 2월 20일 「북조선 수의사 시험규정(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농림국 포고 제18호)」를 제정하였다. 그 후 이들 규정은 1950년 6월 3일에 「수의사에 관한규정(농림성 규칙 제10호)」과 「수의사 검정시험에 관한규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림성규칙 제9호)」로 각각 개정되었다.¹²⁾ 그러나 1955년 수의축산대학이 설립되고 전문 수의사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수의사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졸업생에게 수의사의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에 따른 영향과 수의방역체계의 형성기라는 과도기적인 특성을 반영하듯 북한문헌에서 가축전염병의 피해에 대한 서술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¹³⁾

나. 1960~89년 : 수의방역체계의 확립

1960년 초에는 농업협동화를 기초로 새로운 지도방식인 ‘협동경리의 기업적 지도’를 채택하는 한편, 지도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아래에 ‘가금 및 축산총국’(1960년대 말 ‘가금총국’, 現 ‘국영목장관리 총국’)을 두었다. 가금 및 축산총국은 각 도에 설치된 가금 및 축산총국을 관할하였으며, 대규모의 닭공장, 돼지공장, 종축장과 원종장을 직접 관리하였다.¹⁴⁾ 이와 함께 도 및 군 인민위원회의 농업지도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도농업위원회’(現 ‘도농촌경리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¹⁵⁾’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 가축방역부서를 두어 가축방역소와 가축병원도 분리하여 소속시켰다.¹⁶⁾ 한편, 기존 가축병원들을 수의방역소로 개편하고, 수의방역용 약품을 증산하는 등 수의방역사

10) 본 결정은 목장의 정비강화와 발전 전망성이 있는 목장에 가축 두수 집중, 목장 통합을 통하여 축산경리를 집약화하는 동시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심 제고, 지속적인 방역 및 예방사업 진행으로 가축의 폐사를 근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리효순, 「도영목장 운영개선을 위한 몇 가지 지도경험과 대책」, 『인민』, 제10호, 평양: 인민출판사, 1953, pp.964~973 참조).

11) 김일성, 「산간지대의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농업부문 지도 일군 및 축산기술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4년 6월 7일)」, 『김일성 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457~464 참조.

1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22』, 국사편찬위원회, 1998, pp.385~391.

13)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0』, pp.641~642; 리효순, 위의 글, pp.964~973 참조.

14) 김일성, 「축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가금 및 축산부문 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27일)」, 『김일성 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36~37.

15) 농업성과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군 소재 농장의 관리·운영 전반을 지도 통제하는 기구이다. 동 기구는 농산, 수의축산 등의 부서로 구성되며, 그 산하에 가축방역소, 종축장, 자재공급소 등 기업소를 두고 있다.

16) 김일성,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내올 데 대하여(평안남도 축산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61년 12월 18일)」, 『김일성 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545.

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¹⁷⁾ 이와 같이 농업부문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로 이행, 수의방역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형성하였던 수의방역체계 확립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한편, 농업협동화가 진전되면서 북한 당국은 축산의 집약화와 국유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며,¹⁸⁾ 5개년 계획기간 중 농업협동조합들에 축사건설, 종축구입, 우량종축을 공급하였다.¹⁹⁾ 196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 국영축산과 협동농장 공동축산을 기본으로 가금 및 축산업을 전문화, 현대화, 집약화하기 위한 방침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닭공장, 돼지공장 등의 건설을 촉진하였다.²⁰⁾ 이러한 정책은 축산물의 증산에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축의 집단사육에 따른 문제 즉, 전염병에 의한 가축의 집단폐사에 취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수의방역을 강조하면서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1971년 로동신문의 한 사설²¹⁾에서 수의방역 기관의 중요성과 가축검사의 체계성을 강조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축산업과 수의방역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정책, 과학기술자료, 관리운영지식, 선진경험 등을 수록한 “수의축산”²²⁾ 잡지를 발간하는 등 이전 시기에 형성하였던 수의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안정화하려는 노력도 확인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 수의방역체계가 확립되면서 1960년대를 거쳐 1970~80년대에는 전염성 질병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²³⁾ 북한 당국의 자체 수의방역체계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1990년~현재 : 수의방역체계의 형해화

북한은 1990년대 말까지 특히 일명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부족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산정책은 북한당국이 경제발전 정책에서 견지하고 있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걷어내는 원칙”이 보다 중시되었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곡물

17) 1961년판 조선중앙연감은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한 결과, “가축 전염병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돼지 페스트와 계역을 비롯한 일부 가축전염병들을 1960년에 들어와 기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1, pp.182~183).

18) 1958년 10월 11일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고 그의 규모를 확장할 데 대하여(내각결정 제125호)」를 통해 협동조합들의 통합을 실시한데 이어, 1961년 12월 22일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조직할 데 관하여(내각결정 제157호)」를 발표함으로써 농업지도 관리체계를 집약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협동조합이 축산작업반 또는 축산분조를 조직하여 개인 농가의 가축을 공동 관리하거나, 협동조합 소유로 등록하였다. 이 경우 협동농장이 활성화된 후에 해당 개인 축산 농가에 대가를 지급하는 선취수후보상 방식을 활용하였다. 북한의 TV 드라마(“석개울의 새봄”), 영화(“이 세상 끝까지”) 등 북한의 농업협동화 시기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대중매체에서도 선취수후보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19) 조선중앙통신사, 위의 책, pp.182~183.

20) 『로동신문』, 「축산업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변」, 1979. 6. 27.

21) 『로동신문』,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수의위생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1971. 4. 21.

22) 「수의축산」 축산 및 수의부문 기술경제잡지로서 1959년 7월 23일 창간 농업출판사에서 40쪽 분량으로 격월간으로 발행하였다. 1972년 2호부터 4호까지 “농업기술”(축산기술편) 1987년 2호까지 “축산기술”로 제호가 달라졌다가 1987년 3호부터 다시 “수의축산”으로 환원되었다(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p.3~4).

23) 북한의 『조선중앙연감 1961』은 “돼지페스트와 계역을 비롯한 일부 가축전염병들을 1960년에 들어와 기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사, 위의 책, p.186).

사료에 의하는 가금류 위주의 축산업이 풀 사료에 의하는 초식가축 위주로 변화한 것이다.²⁴⁾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이 종결되고 일명 ‘낙원의 행군’이 시작되던 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축산업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목장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등 일부 현대화를 진행하였다. 해외의 발전된 축산기술과 장비, 약품 등의 수입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가축 품종을 도입하거나,²⁵⁾ 컴퓨터에 의한 사양관리 등에 초점을 두었다. 관련 법령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정하였다.²⁶⁾ 하지만 이 역시도 한국과 일부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하여 일부 현실화되는데 그쳤다.²⁷⁾

이전 시기에 비하여 목장 규모의 확대, 사육가축수의 증가, 가축 이동의 빈도 증가 등에 따라 전염병 유행 시 그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른 재원부족의 여파로 수의방역체계는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료부족으로 인한 가축의 면역력 저하는 전염병에 취약성을 들어냈고, 북한 당국의 수의방역정책도 상당히 위축되었다. 더욱이 재정부족에 시달리던 북한 당국은 수의방역 책임도 ‘자력갱생’을 내세워 주민에게 전가하였다.²⁸⁾ 이 시기에 수의방역사업은 형태만 존재할 뿐, 실제 가축질병의 예방과 치료 활동은 매우 부진하였으며, 이전 시기에 비해서도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시기의 수의방역체계는 재정난에 따른 ‘공공부문에서 위축’과 계획·관리되지 않는 ‘사적부문에 방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2. 현행 수의방역체계

가. 수의방역조직과 기능

북한의 수의방역조직은 당 아래 내각, 그리고 지역단위로 상,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당 농업부문이 수의방역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면, 내각 농업성의 축산총국 산하 수의방역처는 수의약품, 가축질병에 관한 세부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농업성 내 수의방역 조직으로

24) 김정일, 『풀먹는 짐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6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4, pp.297~305 참조.
25)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난용으로 ‘민경닭’, 육용으로 ‘룡성닭’, 난육겸용으로 ‘장수닭’을 국가품종으로 지정하여 이용했으나, 2000년 무렵부터 난육겸용으로 해외에서 도입한 ‘노먼중 닭’을 추가하였다. 노먼중 닭은 2000년 북한군 제489군부대에서 건설한 황주 닭공장과 112닭공장 등 신설 가금목장에 도입되었다(김정일, 『닭공장을 잘 관리운영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새로 건설한 황주닭공장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0년 11월 13일)』, 『김정일 선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267~280).
26) 북한의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이 시기에 제정된 법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1997.12.17. 최고인민위원회 상설회의 결정 제105호로 채택하고 1998.12.3.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1998.6.24.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설회의 결정 제121호로 채택, 1998.12.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 검역법”(1997. 7. 16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결정 제89호로 채택, 1998. 12. 3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이 있다.
27)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부, 2006, pp.89~91 참조.
28) 가축방역 실무 지침서에 해당하는 『방역전서』에도 “...백신, 소독살충약, 진단기재, 수송기재 등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자체로 준비 할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방역전서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그림 1] 북한의 수의방역기구 체계도



자료: 광명대백과사전(18) 및 저자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작성

는 질병 진단, 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중앙수의방역소²⁹⁾와 국영목장의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국영목장관리 총국, 가축의 수출입검역을 담당하는 동물검역소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는 수의방역 정책을 집행하는 도협동농장경리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존재한다. 도협동농장경리위원회의 수의방역 조직으로는 국영목장에 관한 수의방역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도수의방역소와 도국영목장관리국 수의과가 있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수의방역 조직으로는 국영목장에 관한 수의방역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군수의방역소를 두고 있다. 이들 지역 수의방역소는 가축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사무와 가축질병진단, 사육 위생관리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에 도, 시 군을 단위로 하여 200여개 소가 설치되어 있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수의방역사업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으며, 직접기구와 간접기구로 구분하며, 직접기구는 상설기구와 비상설기구로 나뉜다. 상설기구는 수의방역소, 가축병원, 수의초소, 수의방역대, 국경수의 검역소 등이며, 비상설기구는 수의비상

²⁹⁾ 중앙수의방역소에 분장된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축산물 안전성, 소 이력 관련업무, 수의 및 동물용 의약품관리(동물용 의약품의 기준 설정, 정 보수집, 제조 및 공급지도, 단속, 사용기준 준수지도 등)와 사료의 관리 및 감독(사료의 안정성 및 사료첨가제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설정, 검정 및 조사 등), 가축보건에 관한 업무와 위생기술보급, 가축위생에 관한 기획·조사, 전염병 방역·예방, 가축병원체·위생기준관리, 가축위생협정, 국제수역사무국에 관한 사항, 수출입, 동물검역소 조직 및 운영, 동물 및 축산물 검역 등의 업무가 있다.

방역위원회³⁰⁾, 기동방역대 등이 있다. 간접기구에는 수의약품공장, 수의기술일군 양성기관, 수의과학연구기관이 있다.

한편, 수의방역 연구와 개발과 관련한 학술연구기관으로 국가과학원 농업연구소 산하에 수의학연구소³¹⁾가 있으며, 유일한 수의축산전문대학인 평성수의축산대학과 각 지방농업대학에 수의축산 학부를 두고 있다.

나. 수의약품 개발·생산 및 수의기술자 양성

북한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일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지만,³²⁾ 수의약품의 상당 부분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였다. 이후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 따라 북한은 ‘자력갱생’이라는 구호하에 수의약품도 수의방역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다.³³⁾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수의약품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⁴⁾

북한의 초기 수의기술 발전에 소련의 수의기술 지원의 영향이 컸다.³⁵⁾ 한편으로 기술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층을 보호하는 ‘오랜 인텔리 정책’³⁶⁾을 전개하는 등 자체적인 기술자 양성정책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각종 기술 강습 등을 마련하여 새로운 수의분야의 기술자들을 양성하였으며,³⁷⁾ 이후의 시기에도 수의 기술자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³⁸⁾ 1980년대 중반까지 각도에서 1~2개소의 축산 및 수의기술원 양성을 위한 양성학교를 설립·운영해 왔다. 각도 농업대학에 수의축산과가 설치되면서 해체되었다. 또한 북한의 기술자 양성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에서 수의축산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수의분야의

- 30) 경제적 손실이 큰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침입할 위기에 있을 때 조직되는 비상설기구이다. 전국적인 비상방역위원회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농업성이 조직하며 일부 지역적인 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농업성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역 농업지도 기관에서 조직한다. 농업 지도기관과 수의방역기관 수의사들과 필요에 따라 해당 부문 일군(당, 행정, 법)들로 조직한다.
- 31) 수의학연구소는 평양시 용성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방 후 수의방역사업을 위하여 1946년에 조직된 수의생물약품생산과 과학연구 사업을 병행하는 가축위생연구소가 조직되었으며 1952년 과학원이 창립되면서 동산학연구소에 수의학연구소를 내었다. 1958년에 이 연구소는 수의축산연구소로 승격되었으며, 1963년 8월 수의축산학 연구소에서 전문화된 수의학연구소가 분리되었다. 수의학연구소는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구소에는 전염병연구소, 기생충연구소 등 여러 연구실들과 종합실험실, 시험목장 등을 갖고 있다(평화문제연구소·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 p.172).
- 3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으로 1960년에 완공된 순천제약공장, 신의주제약공장, 평양제약공장, 함흥 제약공장, 남포제약공장 등의 일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다(『로동신문』, 「제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우리나라의 제약공업은 더 한층 확장예견」, 1957. 6. 6 기사 참조).
- 33) 『로동신문』, 「수의방역에서 어디에 힘을 넣었는가(중앙수의방역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1988년 1월 11일; 『로동신문』, 「수의방역사업에서 이룩한 성과(홍원군 수의방역소에서)」, 1990년 12월 30일; 『로동신문』, 「소문 없이 큰일을 한다(중앙수의방역소 일군들)」, 1997년 5월 9일 기사 참조.
- 34) 북한의 대표적인 수의약품 생산처로는 평안북도 정주에 소재하고 있는 ‘가금 생물약품공장’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백신)의 개발과 생산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홍원태 박사를 주축으로 연구진이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홍원태 박사의 자제들(홍성식, 홍영식)이 주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로동신문』, 「기술자들의 재능이 활짝 꽃피게, 정주가금생물 약품공장에서」, 1988년 2월 26일 기사와 저자의 기억을 토대로 정리).
- 35) 평양국영농장에는 1958년까지도 소련 수의사가 앓는 젖소의 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국가편찬위원회, 『소련대사 푸자노부의 일지 1958년 9월 25일』, 『북한관계자료집 75』, p.208).
- 36) 일제강점기에 국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거 행적과 정치이념을 불문하고, 연구사업과 교육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정책을 지칭한다.
- 37) 1948년에 이르면 ‘단기강습’, ‘기술학교’, ‘고급기술양성소’에서만 3만 455명이 졸업하였으며, 그 중 1947년과 1948년 졸업자는 630여 명에 달했다(북조선인민위원회 기획국, 『북조선인민경제 부흥발전에 관한 대책(1948년도)』, 『북한경제 통계자료집: 1946-1948』(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pp.235-236 참조).
- 38) 『로동신문』, 「전국축산부문 열성자들의 결의문」, 1958년 12월 10일 기사 참조.

고급 기술자 양성에도 주력하였다는 점이다.³⁹⁾ 1954년 11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기술 양성기관들을 강화하여 축산기술 간부들을 계통적으로 다량으로 양성할 것이다. 특히 수의축산 대학을 설치하고 수의축산 기술자 양성사업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있다.⁴⁰⁾ 이에 따라 설립된 평성수의축산대학에서 현재 배출되는 수의사는 연간 300명 내외에 이르며,⁴¹⁾ 그 밖에 평양농업대학, 사리원농업대학, 원산농업대학에 수의과가 개설되어 수의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⁴²⁾ 이와 함께 수의축산부문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유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소련과 몽고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⁴³⁾ 국내 연구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최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2004년 국제수역사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수의사 인원은 10,19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당시 한국의 수의사 수가 9,769명에 비해서도 많은 수치이다.⁴⁴⁾ 현재의 통계 수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III. 북한의 수의방역 현황과 문제점

1. 수의방역의 기본원칙과 실무지침의 주요내용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수의방역사업들은 기본원칙과 실무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 원칙과 지침은 모든 지역과 축산물 생산 단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북한의 수의방역 현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39) 김일성, 「산간지대의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농업부문 지도 일군 및 축산기술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4년 6월 7일)」, 『김일성 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462 참조.
 - 40) 1946년 10월에 개교한 ‘김일성종합대학’에 농학부 수의축산학과를 북한 최초로 신설한 이후 동 대학의 수의축산학과를 분리하여 1948년 원산농업대학의 축산학부로 만들었다. 그 후 동 결정에 따라, 1955년 8월 5일 원산농업대학의 축산학부를 모체로 강계수의축산대학(現 평성수의축산대학)을 설립하였다.
 - 41) 평성수의축산대학은 3개의 학부(수의학부, 가금학부, 축산학부)와 세 개의 전문학과(역이과공과, 축산기계과, 수의축산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박사원과 연구소, 기축병원, 실습목장 등을 구비하고 있다.
 - 42) 각 지방농업대학은 수의사 양성을 담당하지 않으며, 축산경영기술자 양성을 담당한다.
 - 43) 신효숙, 「소련 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사, 2003, pp.96-98; 김철환,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대외 협력실태 연구』, 통일원, 1990, pp.70~71 참조; 한편, 몽고 수의축산종합대학의 경우 1970년대까지, 소련 모스크바수의종합대학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유학생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된다.
 - 44) 염소를 제외한 가축의 사육 두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수역사무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수의사 인원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다(성환우 외 3인,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체제하의 가축질병 및 방역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2, p.14; p.16; p.50 참조).

〈표 1〉 수의방역사업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의방역부문의 당 정책 해설, 침투 ② 수의법규와 규정, 수의방역지식 학습 ③ 교양, 검열, 단속을 통한 수의위생방역규율을 철저히 세움(전염병예방약접종, 기생충구제, 벌레와 쥐잡이 조직, 가축우리 출입질서, 도살, 질병발생통보, 생산문화, 생활문화, 축산물 위생보장 등에서 나서는 수의위생학적 조건들의 보장) ④ 오염된 지구의 등록과 해제, 교통차단의 실시와 해제, 수의위생방역 월간사업조직⁴⁵⁾ ⑤ 전염병검역사업조직, 소독 및 격리사업조직, 국경검역(국경, 항구, 항공 역)과 내부검역사업 진행 ⑥ 수의개조사업과 수의위생방역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조직진행 ⑦ 수의법의감정을 진행 ⑧ 환경위생, 즉 공기의 물질적 구성과 화학적 조성 ⑨ 목장지대와 건물배치, 집짐승우리의 배설물 처리, 두엄의 무해화, 집짐승우리의 청소와 소독, 물과 토양의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관리, 물의 정화와 소독, 토양의 건전화, 먹이의 가공처리와 먹이보관, 집짐승관리 등 제반 수의방역을 위한 관리
--

자료: 광명대백과사전 (18)

수의방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양관리를 개선하고,⁴⁶⁾ 사료를 충분히 과학적으로 공급한다. 둘째, 질병의 조기발견, 정기적인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셋째,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질병의 진행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질병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 경우 방역규정에 따라 살처분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앞의 두 원칙은 가축질병의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는 북한의 수의방역정책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⁴⁷⁾ 북한의 『수의방역법』 제2조에서도 “수의방역에서 기본은 예방이다. 국가는 동물의 환경위생, 먹이위생, 관리위생 같은 수의위생학적 예방조건을 보장하여 동물의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병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격리·통제하며,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되면,⁴⁸⁾ 발생상황에 따라 질병 발생지역을 통제구역과 제한구역, 간접제한구역으로 탄력적으로 설정⁴⁹⁾함으로써 각각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⁵⁰⁾ 해당 발생지점에서 일정 범위 내를

45) 북한에서는 해마다 3, 4월과 9, 10월을 수의위생방역 월간으로 정하고 집중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6) 북한 사양관리를 위한 점검표 상에는 「① 수의방역에 관한 각종정보와 방역기술, ② 방역구역 설정, ③ 방역구역 병원체 유입 방지대책, ④ 야생 동물에 의한 병원체 침입 방지, ⑤ 방역구역 위생 상태 정상유지, ⑥ 가축의 상태감사와 이상 확인, ⑦ 감염상황 기록 작성 및 보고」를 포함하고 있다.

47)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대백과사전 18』, p.417 참조.

48) 중앙수의방역소의 실험 결과, 질병 발생이 공식화 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상대책을 세운다. 진료 담당 수의사, 해당 질병 전문가, 수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팀이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49) 농업성 내부 문건인 『수의방역감정지도서(잠정)』에 따르면, 대체로 발생지점으로부터 통제구역은 반경 3km 이내, 제한구역은 반경 5km 이내, 간접통제구역은 반경 10km까지로 설정한다.

50) 북한 『수의방역법』 제26조에서 국가는 동물전염성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동물 우종장이나 해당 목장주변의 일정한 구역을 수의방역구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통제구역 내 공장, 기업소와 같은 질병 발생 단위와 해당 지역을 봉쇄한다. 이 경우 통제구역 내 가축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으며, 구역 내 주민의 활동도 제한된다.⁵¹⁾ 또한 발생지점에서 일정 범위 내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제한구역 내 모든 축산시설과 농가는 가축을 실내에서 키우도록 조치되며,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비상방역위원회와 상급수의기관들과의 방역대책 협의, 역학조사를 위한 감염지역으로부터 운반된 가금과 축산물의 최근 이동경로 추적, 제한구역 내 전체 농가와 시설물 검사를 각각 실시하는 동시에 제한구역 내 소독을 진행한다. 그 밖에 통제지역의 주변지역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은 완충지대로서 발생지점에서 일정 범위 내를 간접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질병 발생지역은 질병이 종식되어도 1년간 오염구역으로 등록·관리된다.⁵²⁾

통제구역에서 가축질병의 발생정도와 가축의 종류, 축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방역기관을 포함한 당국의 감시 하에 살처분을 진행한다.⁵³⁾ 가축질병이 발생한 공장, 기업소 내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한구역과 간접통제구역에서는 선택적으로 살처분하여 2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거나 소각하게 된다.⁵⁴⁾ 통제구역 내에서 개인이 사육하는 가축도 검사와 방역조치를 거쳐야 축산생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2. 수의방역 현황과 문제점

가. 수의방역 현황

북한 당국이 식량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축산부문의 증산정책을 펼침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이 증가하고 있다. 식량부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곡물 사료를 주는 가축의 수가 감소하고, 풀 사료를 주는 가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⁵⁵⁾ 2013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⁵⁶⁾에 제시된 아래의 <표 2>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팀이 주민 가정의 방문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역으로 정한다. 수의방역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공무원이 한다고 규정하며, 제36조에서 농업지도기관은 동물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교통을 차단하고 인원과 운수수단, 동물, 동물먹이, 축산물 같은 것의 이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1) 통제 대상자에는 수의사, 인공수정사, 축산물 등의 운반자, 축산기계 조작자,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파견된 근무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52)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대백과사전 18』, p.421.

53) 협동단체나 개인 소유의 가축이 아닌 경우 즉, 국영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하나, 국영농장의 가축은 국가소유이므로 현실적으로 보상의 의미가 없다.

54)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대백과사전 18』, p.421.

55)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8 November 2013, p.24.

56)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공동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10월 보름간 협동농장, 주민의 집, 시장, 국영상점을 방문하여 식량 현황을 조사를 해왔다. 1995년 시작된 조사는 2000년대 들어와 네 차례 중단된 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 진행되었지만, 2014년부터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이 없어 중단되고 있다.

<표 2> 1996~2013년간 북한의 가축 사육 두수의 변화

(단위 : 천마리)

	1996	2000	2004	2008	2012	2013	2013년 대비 변화율(%)		
							1996	2008	2012
소	615	579	566	576	576	576	-6	0	0
양	248	185	171	167	168	168	-32	1	0
염소	712	2,276	2,736	3,441	3,689	3,682	417	7	0
토끼	3,056	1,475	19,677	26,467	29,120	31,480	930	19	8
돼지	2,674	3,120	3,194	2,178	2,857	2,265	-15	4	-21
닭	8,871	14,844	18,729	14,071	16,847	15,309	73	9	-9
오리	1,098	2,078	5,189	5,878	5,468	6,012	448	2	10
거위	554	889	1,580	1,477	1,584	1,880	239	27	19

자료: FAO · WFP(2013).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개인 농가의 가축사육 현황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체 개인 농가의 가축사육의 상당 부분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통계숫자는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개인 농가에서 생계목적의 가축사육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부 기업수준의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북한 농촌지역의 개인 농가에서 대체로 돼지 1마리, 닭이나 오리 5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가능한 사육 두수를 증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육류의 80~90% 정도는 개인 농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북한지역의 국영 축산공장, 기업소의 수는 파악된 것만 144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휴전선과 인접한 것은 총 4곳으로 황해남도 웅진군 연봉의 오리목장과 연안군 개안 젓소목장과 개성시의 개성 닭공장, 강원도 고성 닭공장으로 확인되었다.⁵⁷⁾ 이들 축산시설물은 휴전선으로부터 5~30킬로미터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08년 황해남도화 강원도의 가구 수는 94.6만개⁵⁸⁾로 개인 농가에 상당수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에서 구제역은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인 1949~60년대와 극심한 경제난이 있던 1990년대 이후 대유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간헐적인 유행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01년 3월 북한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의 회원국이 되면서 가축질병이 발생될 경우 이 사실을 OIE에 보고함에

57) '부록' 참조.

58) 김두섭 외 4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통계청, 2011, p.210 참조.

〈표 3〉 북한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감염 현황

(단위 : 건, 마리)

질병명	연도	신규발생	총발생	감수성	사례	폐사
구제역(국내)	2007	1	1	466	431	0
구제역(국내)	2010	26	26	15,007	8,641	8,340
구제역(국내)	2011	114	140	1,1815,625	6,965	3,353
고병원성조류독감	2013	1	1	22,600	166,000	44,000

자료: OIE 통계자료

따라 과거와 달리 전염성질병의 발생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⁵⁹⁾ OIE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북한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감염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나. 문제점

북한의 수의방역조직과 수의약품 개발·생산 및 수의기술자 양성, 수의방역의 원칙과 실무지침의 주요내용에서 일반적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른 재원부족에서 비롯된 ‘형식과 실제 적용’의 괴리는 북한의 수의방역 현실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의방역조직과 수의기술자 양성 등 기존의 수의방역체계에 관한 것과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현실에 관한 것, 그리고 체제유지와 관련된 정치에 관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난은 수의방역조직의 정상적인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수의약품 개발·생산 능력의 저하와 수의기술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계획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었던 축산 공장, 기업소도 사료, 장비 등의 부족과 ‘8·3 노동자’와 같이 노동력의 이탈 등에 따라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즉, 기존의 수의방역체계가 형해화되면서 수의방역체계의 개선 능력도 함께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축산의 집약화와 국유화는 가축의 집단사육에 따른 집단폐사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특히 가계 빈곤은 축사의 위생환경 관리와 사료공급에도 차질 빚게 됨으로써 사육 가축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풀 사료를 주는 가축, 즉 우제류가축 사육의 증가는 급성전염병인

59) 현재까지 매체보도 또는 OIE 보고로 공개된 북한 지역의 구제역 발생은 2006년 1월, 2007년 3월, 2008년 7월, 2010년 2월, 4월, 12월, 2012년 1월, 2014년 2월 여덟 차례, 조류독감 발생은 2005년 2월, 2013년 4월, 2014년 4월 세 차례로 확인되었다.

구제역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⁶⁰⁾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인 농가에 의한 가축사육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수의방역체계 개선과 같은 북한 당국의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가축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개인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은 수의방역체계의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였다. 개인 농가는 시장에서 각종 약품과 백신을 직접 조달하고 있다. 심지어 수의방역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개인 농가는 사육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라도 해당 가축을 도살해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북한 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⁶¹⁾ 이와 같은 수의방역체계의 공백은 전염병의 대유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은 물론, 북한 주민의 보건위생도 인수공통전염병의 감염과 같은 심각한 위해요소에 노출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지역의 급성전염병인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이 바람, 물 등에 의하여 남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⁶²⁾ 휴전선에 인접한 국영 및 개인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된 가축의 분뇨, 폐사된 가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원성 물질들은 인접 하천과 지하수, 매개동물 등을 통하여 우리 측의 가축 농가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난에 기인된 문제점들 이외에도 북한 당국이 주민의 보건위생 보다는 체제유지에 초점을 둔데 따른 수의방역부문의 문제도 존재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약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발생된 전염병을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0년 초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토지정리 실시, 전력생산과 관개농업을 위한 무분별한 댐 건설과 물길 훼손 등은 가축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전염성 병원균의 보균자인 철새들이 관개수로와 농지에 모여들면서 이곳에서 방목 가금류, 특히 사육오리가 전염병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다.⁶³⁾

60) 북한 지역의 구제역 발생이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주석 59’ 참조).

61) 구제역이 발생되어도 현지 농민들과 축산 관계 당국에서는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하였으며, 가축전염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당, 행정, 법’ 담당 임원들은 감염된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농가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염병 발생지역의 수의사는 가축사양장소 또는 판매장에서 고기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 농가의 생계를 고려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2) 구제역 확산에는 무생물적 요인으로는 바람, 물 등이 관여되며, 생물적 요인으로는 매개생물, 사람, 교통수단 등을 들 수 있다(김경수, ‘구제역 정책실재로 인한 환경문제와 시민과학’, 『환경사회학연구』, 15(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1, p.89 참조.

63) 한편, 함경남도 정평의 광포 오리공장과, 함경북도 청진의 룡제 오리공장, 평양의 두단 오리목장을 비롯한 북한의 국영 오리 사육시설들은 자연하천과 자연호수 주변에 설치되었다.

IV. 맺음말

해방 이후 북한은 농업 협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축산부문의 집약화와 국유화를 통한 축산물 증산을 도모하는 한편, 국영축산과 공동축산 방식에 따른 수의방역체제도 형성되었다. 가축의 집단사육은 전염병에 의한 집단폐사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북한 당국은 수의방역에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북한에서 집약화와 국유화에 적합한 수의방역체계가 확립되면서 1980년대까지 가축전염병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까지 북한의 수의방역조직과 수의약품 개발·생산 및 수의기술자 양성, 수의방역의 원칙과 실무지침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체계를 갖췄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현재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수의방역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생계목적으로 개인 농가의 가축사육도 증가하게 되었지만,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수의방역 책임을 개인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 국영 중심의 축산과 그에 적합한 기존의 수의방역체제는 개인 농가에 의한 가축사육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의방역의 공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축산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수의방역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를 방기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전염병 발생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 밝혔던 북한 지역의 수의방역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수의방역체계의 형해화이다. 수의기술자의 전문성 부족, 수의약품 및 가축사료 공급 능력 저하, 축산 노동력의 이탈에 따라 수의방역 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어려워졌다. 둘째,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비위생적인 축사, 부족한 사료공급에 따라 사육가축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위생관리 없는 가축의 방목은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에 취약하다. 더욱이 개인 농가의 가축사육이 꾸준히 증가로 인해 기존 수의방역체계에 의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 축산물의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가축 전염병 이외에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셋째,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 차원에서 전염병 발생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댐 건설, 물길 훼손으로 사육가축과 야생동물의 접촉을 증가시킴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방역전서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22』, 국사편찬위원회, 1998.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0』, 국사편찬위원회, 1998.
- 김두섭·최민자·전광희·이삼식·김형석,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통계청, 2011.
- 김석동, 『북한의 농업환경과 농축잡산업의 실태 및 생산동향분석』, 농업사회발전연구원, 2011.
- 김철환,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대외 협력실태 연구』, 통일원, 1990.
- 김형화, 『북한의 축산 현황과 남북한 축산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대백과사전 18』,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성환우·한정희·김준영·장경호,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체제하의 가축질병 및 방역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 신효숙, 『소련 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사, 2003.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1.
-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부, 2006.
- 평화문제연구소·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 평화문제연구소, 2003.

2. 논문

- 김근배, 「월북과학기술자와 흥남공업대학의 설립」, 『아시아 연구』, 1997.
- 김운근, 「농업부문 대북지원 및 협력의 새로운 모델개발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2005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김운근·신승렬, 「북한의 축산물 수급 현황과 대북 축산업 지원 방향」, 『농촌경제 2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김일성, 「산간지대의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농업부문 지도 일군 및 축산기술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4년 6월 7일)」,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국영농목장사업을 개선하며 국영경리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농림성및국영농목장일군회의에서 한 결론 1949년 7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산간지대의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농업부문 지도 일군 및 축산기술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4년 6월 7일)」, 『김일성 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축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가금 및 축산부문 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27일)」,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김일성,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내올 데 대하여(평안남도 숙천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61년 12월 18일)」, 『김일성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김정일,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6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 김정일, 「닭공장을 잘 관리운영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새로 건설한 황주닭공장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0년 11월 13일)」, 『김정일 선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김정수, 「구제역 정책실패로 인한 환경문제와 시민과학」, 『환경사회학연구』 15(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1.
- 리효순, 「도영목장 운영개선을 위한 몇 가지 지도경험과 대책」, 『인민』, 제10호, 평양: 인민출판사, 1953.
- 북조선인민위원회 기획국, 「북조선인민경제 부흥발전에 관한 대책(1948년도)」, 『북한경제통계자료집: 1946-1948』,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 조충희, 『북한의 수의방역정책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지인배, 「북한의 축산과 남북협력방안」, 『북한농업동향』, 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FOA · 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8 November 2013.

3. 기타자료

『로동신문』

TV 드라마(“석개울의 새봄”), 영화(“이 세상 끝까지”)

부록

〈부표〉 북한지역 국영축산기지 현황

지역	명칭	소재지	생산물	비고
평양시	두단 오리공장	락랑 두단	오리고기, 오리알	1954.08 조업
	9.27 닭공장	력포구역	닭고기, 계란	2001.09 조업
	룡성 닭공장	룡성구역	닭고기	1966.10 조업
	마람 배합사료공장	룡성구역	배합사료	1968.04 조업
	만경대 닭공장	만경대구역	계란	1966.10 조업
	평양 돼지공장	사동구역	돼지고기	1972.10 조업
	도덕 오리목장	삼석 도덕	오리고기	1965년 조업
	순안 오리목장	순안구역	오리고기, 종란	체리벨 오리
	은정 오리	은정구역	오리고기	
	하당 닭공장	형제산 구역	계란	
	서포 닭공장	서포구역	계란	
	기금공학연구소	룡성구역		1947년 창설
	수의학연구소	룡성구역		1947년 창설
평양남도	봉학 닭공장	평성시 봉학	계란	
	개천 닭공장	개천시	계란	1968.08
	개천 오리공장	개천시 구읍	오리고기	
	개천 배합사료공장	개천시	배합사료, 첨가제	1965.10
	덕천 닭공장	덕천시	닭고기, 계란	
	순천 닭공장	순천시	계란	
	문덕 닭공장	문덕군 만흥	계란	
	청남 오리목장	청남구	오리고기	
	성천 닭공장	성천군	계란	
	맹산 소목장	맹산군	종자 소, 후보 소	
	은산 오리목장	은산군	오리고기	
	평원 토끼종축장	평원군	종자 토끼	
	안주 닭공장	안주시	계란	
	덕천 절소목장	덕천시	우유, 유제품	
	북창 닭공장	북창군	계란	
	북창 돼지공장	북창군	돼지고기	
녕원 닭공장	녕원군	계란		
평양북도	신의주 닭공장	신의주 선상	계란	
	하단 오리목장	신의주 하단	오리고기	
	신의주 돼지목장	신의주	돼지고기	
	구성 닭공장	구성시	계란	시험장
	백상 사슴목장	구성 백상	녹용 등 약재	
	기금생물약품공장	정주시	기금용 백신	백신연구 및 생산
	정주 닭공장	정주시	계란	
구장 오리목장	구창군	오리고기		

지역	명칭	소재지	생산물	비고
	대관 토끼 종축장	대관군	종자 토끼	얼룩토끼, 흰토끼
	신곡오리	동림군 신곡	오리고기	
	오봉 토끼목장	동림군 오봉	고기, 모피	
	삭주 닭공장	삭주군	계란	
	선천 닭공장	선천군	계란	
	덕현 닭공장	의주군 덕현	계란	
	하서 닭공장	향산군 하서	계란	
함경남도	단천 닭공장	단천시	닭고기, 계란	
	단천 오리공장	단천시	오리고기	
	함흥 닭공장	함흥시	계란	
	홍상 닭공장	금야군	닭고기, 계란	
	인흥 젖소목장	금야군 인흥	우유, 유제품	
	검덕 젖소목장	단천시 검덕	우유, 유제품	
	홍상 젖소목장	금야군 홍상	우유, 유제품	
	정평 돼지목장	정평군	돼지고기, 종자돼지	
	광포 오리공장	정평군	오리고기	1954년
	장흥 닭공장	정평군	계란	
	추상 닭공장	함주군 추상	계란	
	광덕 국영목장	금야군 광덕	고기, 유제품	
	삼호 닭공장	락원군	계란	
	리원 닭공장	리원군	계란	
	함주 닭공장	함주군	계란	
	내일목장	내일노동자구	고기, 유제품, 모피	양, 토끼, 염소
	추상 젖소목장	함주군 추상	계란	
함경북도	청진(구덕) 닭공장	청진시 라남	계란	
	룡계 오리공장	청진시 청암	오리고기	
	청진 돼지공장	청진시 라남	종자돼지, 돼지고기	
	구덕 젖소목장	청진시 라남	우유, 유제품	
	마전 사슴목장	청진시 청암	녹용 등 약재	1967년 사슴목장 승격
	송평 해리서 목장	청진시 송평	고기, 모피	
	김책 닭공장	김책시	계란	
	김책 오리공장	김책시	오리고기	
	회령 닭공장	회령시	계란	
	경성 닭공장	경성군	계란	
	경성 토끼목장	경성군	고기, 모피	
	길주 닭공장	길주군	계란	
	강원도	원산 닭공장	원산시	계란
원산 오리공장		원산시	오리고기	
원산 젖소목장		원산시	우유, 유제품	
문천 닭공장		문천군	계란	
고산 돼지목장		고산군 광명	고기, 종자돼지	1972년 백종 자모종
고산 닭공장	고산군	계란		

지역	명칭	소재지	생산물	비고
	천내 오리목장	천내군 룡담	오리고기	
	세포 종합목장	세포, 평강	고기, 우유, 유제품	
	고성 닭공장	고성군	닭고기	
	안변 닭공장	안변군	계란	
랑 강 도	해산 닭공장	해산시 위연	계란	
	해산 젖소목장	해산시	우유, 유제품	
	강구 오리목장	해산시 강구	오리고기	
	벽산 돼지목장	대흥단군	돼지고기	
	백암 닭공장	백암군 유평	계란	
	령성 염소목장	삼수군 령성	유제품, 우유	
	갑산 소목장	갑산군	종자 소	
라 선 시	우암 젖소목장	우암리	우유, 유제품	
	하어평 양목장	하어평, 원경	고기, 모피	
	부포 오리목장	선봉 부포지구	오리고기	
	선봉 닭공장	선봉 웅상	계란	
황 해 남 도	백학 토끼목장	백학리	고기, 모피	
	해주 닭공장	해주시	계란	
	학현 젖소목장	해주시 학현	우유, 유제품	
	덕중 오리목장	과일군 덕정	오리고기, 종자오리	
	구미 닭공장	룡연군 구미	계란	
	가평 돼지목장	료연군 가평	돼지고기	
	수교 닭공장	삼천군 수교	계란	
	구산 닭공장	송화군 구산	계란	
	신천 닭공장	신천군 사창	계란	
	개안 젖소목장	연안군 개안	우유, 유제품	
	연봉 오리목장	웅진군 연봉	오리고기	
	청산 돼지목장	신천군 청산	돼지고기, 종자돼지	
	황 해 북 도	사리원 닭공장	사리원시	계란
사리원 오리목장		사리원시	오리고기	
사리원 배합사료		사리원시	가축배합사료	
중화 닭공장		중화군	계란	
강남 돼지공장		강남군	돼지고기, 종자돼지	
강남 오리목장		강남군	오리고기	
송림 닭공장		송림시	계란	
송림 젖소목장		송림시	우유, 유제품	
황주 닭공장		황주군	계란	
개성 닭공장		개성시	계란	
평산 오리목장		평산군	오리고기	
린산 사슴목장		린산군	녹용 등 약재	
	봉산 닭공장	봉산군	계란	
	강계 닭공장	강계시	계란	

지역	명칭	소재지	생산물	비고
자 강 도	강계 오리목장	강계시	오리고기	
	희천(청상) 닭공장	희천시 청상	계란	닭 시험장
	희천 오리목장	희천시	오리고기	
	전천 닭공장	전천군	계란	
	전천 오리목장	전천군	오리고기	
	만포 닭공장	만포시	닭고기, 계란	
	성간 닭공장	성간군	계란	
	성간 오리공장	성간군	오리고기	
	고풍 염소목장	고풍군 방성	유제품	
	고풍 돼지목장	고풍군	종자돼지	
	우시 소목장	우시군	종자소	
	위원 돼지목장	위원군 량강구	돼지고기, 종자돼지	
	자성 오리목장	자성군	오리고기	
	신평 목장	자성군 신평리	고기, 유제품, 모피	
남 포 시	남포 닭공장	와우도 구역	계란	
	남포 돼지공장	신흥리	종자돼지	
	강서 닭공장	강서군 잠진	계란	1967년 조업
	강서 돼지공장	강서군 잠진	돼지고기	1970년 조업
	대안 닭공장	대안구역	닭고기, 유제품	
	대안 젖소목장	대안구역	우유, 유제품	
	룡강 젖소목장	룡강군	우유, 유제품	
	룡호 목장	룡강군 룡호	고기, 유제품, 모피	

자료 : 『조선향토대백과(1)~(00)』에 기술된 내용과 저자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